

익산시 공공도서관 발전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Public Library in Iksan

이 현 실(Hyunsil Lee)**

〈목 차〉

I. 서론	3. 공공도서관 발전 과제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III. 도서관 발전전략
2. 선행연구	1. 도서관 인프라 확충
II. 익산시 공공도서관 발전과제	2. 권역별 도서관 운영과 특성화
1. 익산시 인구현황과 도시특성	3. 도서관 신설과 운영모델
2. 도서관 현황 분석	IV. 결론 및 제언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익산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도서관 시설에 걸맞은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서의 충원이 절실하다. 익산시 도시 정책과 특성을 살려 각 도서관에 맞게 ‘역사문화’, ‘근대·향토문화’, ‘보석·귀금속’, ‘식품클러스터’, ‘여성’, ‘행정·복지’, ‘환경과 생태’ 등의 주제로 도서관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법인 영어도서관 운영과 청소년 도서관 설립으로 교육도시 익산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 도서관의 특성화 중심 운영은 익산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 발전 전략, 도서관 특성화

ABSTRACT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in Iksan, several strategies that may contribute to its regional development have been established. The strategies are as follows. The first one is to hire more librarians to perform the role of libraries at the advanced level that are suitable for the ever-growing library facilities. The second is the plan for specialization of the libraries, which was proposed with each subject suitable for each library such as History Culture, Modern and Local Culture, Jewelry and Precious metal, Food Cluster, Female, Administration & Welfare, and Environment & Ecology by matching the urban policies and characteristics of Iksan with these library. The others are the operation of English library in the way suggested in this study and the establishment of youth library to build up the role of the libraries in educational city. Through these strategies, the overall function and role of the public libraries in Iksan can be strengthened and emphasized.

Keywords: Public library, Library development strategy, Library specialization

* 본 논문은 ‘익산시 남부권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연구(201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hyunsil@wku.ac.kr)

•논문접수: 2018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8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9월 14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3), 429-458, 201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9.429]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공공도서관은 복합적인 정보문화 공간으로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시민의 삶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공간이 될 것이며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높아질 것이다. 국가에서도 공공도서관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도서관이 정보환경 변화에 다양해진 이용자의 요구에 앞선 순발력 있는 대응과,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전략을 세우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어, 2013년도에 전국 865개에서 2017년 1,042개로 5년 동안 20% 이상 증가하였다.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에는 도서관의 기반 확충 뿐 아니라 특화도서관 육성, 장서확충, 전문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도서관 운영 내실화의 방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서관 환경변화의 대응책으로서 100세 시대의 도래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의 중요성 부각, 창의성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요구, 지역공동체의 거점으로서 도서관 역할 증대, 스마트 시대의 도래와 융·복합 시대의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익산시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생활에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가의 도서관 발전 정책에 동참하여 도서관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들을 시행하면서 도서관 발전과 추가 신설에 따른 운영 방향에 대한 고심과 더불어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의 문화기관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방안을 찾고 있다. 공공도서관 전반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방향 설정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익산시립도서관이 균형적 발전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국가의 도서관 발전 정책에 부합되는 역할을 찾아,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도서관 운영과 건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과 시설 확충의 현안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찾으며, 강점을 살려 지역특색에 맞는 전략적인 도서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의 진행은 먼저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파악하고, 익산시 공공도서관 현황을 진단한 후, 도서관 운영 환경에서 내·외적 장단점 분석을 통하여 익산시립도서관 발전 과제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표설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부분을 확인하며, 익산시립도서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특징을 살린 도서관 특성화 중심의 권역별도서관 운영 및 신규로 설립되는 도서관의 운영모델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데 그 존재의 당위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하고 현실에 적응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지식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사회의 평생교육센터로서의 기능, 지역사회 문화의 발전을 위한 사회문화센터로서의 기능, 여가생활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가센터로서의 기능,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편의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다(조찬식, 조미아 2011, 38-41). 하지만 공공도서관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한 채 항상 발전의 단계에 있기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고, 외부환경 변화에도 부응해야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끊임없는 연구가 요구된다.

곽동철(2016)은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공공과 공공성의 개념을 고려하면서 국내외 공공도서관 관련 천명서 등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본적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기관, 둘째, 지식정보 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장치, 셋째, 역사의 왜곡화를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함양하고 정착시키는 보루, 넷째, 지식정보의 재생산기지, 다섯째,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중복적 매개적 역할 수행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건립과 운영의 전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강조가 필요했고, 문헌정보학계에서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건립과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쉽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와 문화창조의 핵심기관이며 지식정보자원의 산실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2014)의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이 효율적인 정보활용과 서비스를 위한 이용자 친화적인 문화공간으로서 발전하는 방안에 1) 도서관 이용자 연령대별로 바라는 도서관 역할에 대한 전략적 계획과 실행요구, 2)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3) 도서관 발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도서관수와 전문인력의 증가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 대책 제시 4) 도서관 협력망 구축확장, 5) 문화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연령층 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6) 도서관 발전을 위한 사회자본 창출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곽동철(2012)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지만 양적으로 도서관의 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내실을 다지는 데는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력 확충을 들었고, 도서관 신규건립에 최소 기본 인력은 채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덕현과 강성권(2016)의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연구 역시 부산시 공공도서관에 사서수 부족의 심각성을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3호)

밝힘과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추가건립 및 장서 확충 방안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과 목표로 생애주기별 서비스 활성화, 외국인 및 다문화서비스 확대,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및 시설 노후와 개선,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개선, 지역대표도서관 권한 강화 및 지원체계의 구축의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윤희윤(2015)은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었을 지라도 ‘인문주의에 입각한 문화적 성숙’이라는 최종 관문을 통과하려면 지역사회의 무수한 문화기반시설 중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고 요체에 속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여가 필수라고 보았다. 이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여 방안을 첫째, 공공도서관을 지역주민이 공인하는 지식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해야 하고, 둘째, 지역 대중 뿐 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해득력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 및 저변확장에 치중해야 하고, 넷째, 평생학습(문화) 프로그램 제공서비스를 최적화하고 다섯째, 시설·공간의 개방화와 친숙성 증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사업 확대를 들고 있다.

노영희와 장정아(2014)는 공공도서관은 향토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기관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지식 및 관심 강화, 지역의 역사성 보존 등의 공공적 역할을 위해 지역의 향토문화콘텐츠를 수집·보존·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의한 향토문화콘텐츠 관리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고,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도서관에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및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는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위상 및 존재감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대를 통한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승민(2016)은 공공도서관은 사회 자원을 형성하는 주된 기관 중의 하나이며, 사회자본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전반적인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의 조사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은 교량 사회자본을 증시키는 데에는 결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속 사회자본의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해 주는 과정을 통해 개인인 수에서의 사회자본 형성에 결정인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공공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신뢰는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활동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도서관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공공도서관 이용 이외에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찬식(2008)은 사회적 기구로서 공공도서관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고 주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습적인 운영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특성화라는 방식으로 경영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

공공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하며, 셋째, 특성화된 공공도서관의 정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이 도입되어야 하며, 넷째, 특성화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채용되어야 하며, 다섯째 이용자의 인식 유도를 위한 외부기관과 원활한 교류, 여섯째, 특성화 전략에 대한 경영마인드 확립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주소 확인을 통한 과제들을 파악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아직도 추가건립 및 인력과 장서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은 물론 시민들에게 여가와 생활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보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발달의 장이 되어야 하고 국가의 문화적 성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임무가 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의 기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아가 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향토문화콘텐츠 수집, 창조 및 사회자본 창출 확대와 정보 재생산과 같은 도서관의 서비스 역할이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적 역할만을 강조할 수 없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의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관습적 운영 방식을 탈피한 효율적 경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이용자 접근성, 지역사회분석, 전문화된 인력, 타기관과 교류협력, 경영마인드를 전제로 지역의 문화 성장과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 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된다고 파악된다.

II. 익산시 공공도서관 발전과제

1. 익산시 인구현황과 도시특성

익산시 인구는 2017년 12월 기준 300,187명으로 남자 149,587명 여자 150,600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은 모현동, 삼성(부송)동, 어양동, 영등1동, 동산동, 신동의 순이다. 읍면지역에서는 모현동과 접해있는 오산면, 다음으로 황등면, 합열읍, 금마면, 왕궁면 순이다<표 1>. 익산시는 시·군 통합도시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인구가 55,426명으로 약18.5%의 구성 비율이다. 3세까지의 영아 인구가 8,420명, 4세-12세 어린이가 23,993명(8%), 13세-18세 청소년이 20,679명(7%), 19세-64세 까지의 청장년이 196,738명(66%), 65세 이상 노인이 50,357(17%)명이다(익산시청 홈페이지).

〈표 1〉 익산시 읍·면, 동별 인구수 분포 현황

동	인구수(%)	인구순위(동별)	읍·면	인구수(%)	인구순위(읍·면별)
중앙동	3,776(1.26)	14	함열읍	7,623(2.54)	3
평화동	4,663(1.55)	13	오산면	8,513(2.84)	1
인화동	7,461(2.49)	11	황등면	7,929(2.64)	2
동산동	23,315(7.77)	5	함라면	2,458(0.82)	12
마 동	10,174(3.39)	9	용포면	1,755(0.58)	14
남중동	13,150(4.38)	8	성당면	2,068(0.69)	13
모현동	41,092(13.69)	1	용안면	2,930(0.98)	10
송학동	9,338(3.11)	10	낭산면	3,310(1.10)	8
신 동	16,509(5.50)	6	망성면	3,199(1.07)	9
영등1동	25,628(8.54)	4	여산면	3,583(1.19)	7
영등2동	15,729(5.24)	7	금마면	5,360(1.79)	4
어양동	26,051(8.68)	3	왕궁면	4,918(1.64)	5
팔봉동	7,087(2.36)	12	춘포면	4,900(1.63)	6
삼성동(부송동)	33,165(11.05)	2	삼기면	2,793(0.93)	11
			용동면	1,710(0.57)	15
300,187(인구합계)					

자료: 익산시 인구통계(2017. 12)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모현동에는 모현도서관, 삼성동에는 부송도서관이 있고, 어양동은 도서관이 없으며, 영등동에는 영등도서관이 있다. 영등도서관과 부송도서관은 거리가 멀지 않으며, 영등동과 삼성동 사이에 위치한 어양동 주민은 양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인구수가 많은 동산동, 신동, 남중동은 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고, 마동은 구도심 중심으로 인구수가 비교적 많지 않지만 마동도서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2개 도서관이 있다. 읍·면지역에서는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오산면 주민은 모현동에 인접하여 모현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 황등면에는 황등도서관, 함열읍에는 함열도서관이 있다. 그 다음 인구수가 많은 금마면을 중심으로 익산동부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다.

익산시는 시·군 통합 중소도시로 농업전통이 강하며 토지의 절반이상(50.4%)을 논밭으로 사용하고 농식품 산업이 발달된 지역이다. 농촌지역은 물론 도심에도 노령인구가 많은 익산시는 ‘할매할배의 날’을 지정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역량교육에 힘쓰고 있다. 평야지대에 위치한 익산시는 임야의 면적이 토지의 22.4%로 시내에는 큰 산이 없고, 평지에 도심공원을 많이 조성한 특징이 있으며, 모현도서관, 영등도서관은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가장 큰 공원은 동산동의 만경강 지류인 유천에 조성한 유천생태습지공원이다. 유천의 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된 물이 공원으로 흐르게 만들어져 있어 물길을 따라 각종 동식물들이 이 유천 생태습지에 등지를 틀고, 쉬어가는 생태공원으로 조성되

어 있어 성인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장소로 추천되고 있는데 향후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남부도서관의 배후지이기도 하다.

영등동 주변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익산시는 교육열이 높은 도시이다.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학생과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마동에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 참여의 '익산교육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지원, 청소년 공부방 지원,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교육을 위한 요구 사항이 많았다. 익산시는 중앙체육공원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같은 공원내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회관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익산시는 전라선과 호남선, 군산선(장항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고 익산공단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귀금속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세공 기술을 알리고, 보석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세계적인 보석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익산시는 1999년부터 해마다 산업축제인 보석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보석 문화의 대중화를 통해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부활시키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세운 보석박물관이 있다.

익산시가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관광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시민 아카데미 운영, 사진전 개최와 대중교통을 활용한 광고 등 지속적인 교육 홍보 강화에 힘쓰면서 세계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강화에 주력하고 시의 중점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한편, 익산농악과 이리향제줄풍류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익산시는 1991년 익산문화원을 설립하였다. 익산시는 미륵사지와 승림사, 화산천주교 나바위 성당, 두동교회, 원불교 총부로 구성하는 4대 종교 성지를 가지고 있는 드문 도시이기도 하다. 익산시는 이 같은 종교성지와 가람 이병기 생가와 같은 건물들, 조통달 명창과 오창숙 명창의 예술 활동 근거지 등 근대의 예술·역사·문화의 발굴·보존과 문화사업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산업 전통이 강한 익산시는 또 하나의 육성사업인 농업생명벨리의 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을 위하여 1단계 사업 준공을 마치고 홍보 및 투자유치를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지원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벤처센터 등의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들과 식품관련 연구소가 들어서면 익산시는 미래 글로벌 식품시장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2009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되어, 여성친화거리와 같이 도로, 교통, 공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시설인프라 조성하였고, 다양한 여성 친화 문

화프로그램 보급으로 양성 평등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는 생애주기별 주요복지 정책과 농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이어가면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책을 공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민의 숙원인 익산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도 시작되어 시민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류, 소통과 휴식의 중심적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내용면에서도 지방자치 정책에 시민의민주적 참여를 유도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2. 도서관 현황 분석

익산시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2개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5개관의 총 7개관이다<표 2>. 2016년에 소규모의 황등도서관을 개관하였고, 도서관 이용거리가 먼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관 개관을 고려하고 있다. 마동지역에는 시립마동도서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의 2개 도서관이 있는데, 마한교육문화회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서 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및 학부모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다. 현재 마동도서관 권역인 남부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남부지역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표 2> 익산시 공공도서관 현황

설립주체 (위치)	도서관명	개관 년도	권역	시설연면적 (㎡)	직원수 (사서)	인쇄 자료수
교육청 (마동)	마한교육 문화회관	2000	익산전역, 마동	4,563	22(4)	134,201
교육청 (함열읍)	마한교육 문화회관 함열분관	1990	함열읍, 낭산면, 성당면	1,227	3(2)	88,677
지자체 (모현동)	익산시립 도서관 모현분관	2011	익산전역, 모현동, 송학동, 남중동, 신동, 오산면	7,492	24(11)	145,038
지자체 (영등동)	익산시립 도서관 영등분관	2003	영등1·2동, 어양동	3,575	11(4)	151,375
지자체 (부송동)	익산시립 도서관 부송분관	2012	삼성동, 팔봉동	3,743	9(4)	79,464
지자체 (마동)	익산시립 도서관 마동분관	1994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4,973	9(3)	206,595
지자체 (황등면)	익산시립 도서관 황등분관	2016	황등면	422	2(2)	12,948
합 계		-	-	24,647	80(30)	817,85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17. 12. 31기준)

익산시 공공도서관 통계<표 3>에 나타난 1관당 인구수는 2016년 황등도서관 설립과 더불어 크게 줄어 42,884명으로 2017년 말 전국평균 1관당 인구수의 86.3%이고, 인구수가 유사한 광명(33만명대)시의 62.9 수준이다. 하지만 1관당 사서(정규직) 수는 해마다 줄고 있어 3.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2명 부족하고, 광명시보다 2.3명 부족한 수준이다. 사서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표 4>도 전국평균보다 17.6%, 2038명 많고, 광명시보다 35.8%, 3563명이 많다. 1관당 방문자수는 해마다 줄고 있고, 전국평균과는 유사하나 광명시의 42.4% 수준이다. 인쇄자료수는 전국평균보다 13.8% 많고 1인당 장서수는 전국평균보다 0.69권, 광명시보다 0.19권 많다<표 5>. 대출수는 크게 부족하여 전국평균의 78.9%, 광명시의 62.5% 수준이다.

<표 3> 익산시 공공도서관 1관당 통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전국	2017 *광명
인구수	51,090	50,686	50,344	42,926	42,884	49,692	67,897
사서(정규직)수	5.0	4.5	4.5	3.0	3.1	4.3	6.6
방문자수	349,959	363,620	332,799	268,107	260,024	261,103	613,910
인쇄자료수	105,324	112,026	118,881	110,968	116,836	100,734	168,599
대출수	146,634	150,489	131,530	101,240	95,897	121,528	258,68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17. 12. 31기준)
*인구수가 33만으로 유사한 광명시와 비교함

<표 4> 익산시 사서(정규직)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전국	2017광명
10,218	11,264	11,187	14,309	13,645	11,607	10,08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17. 12. 31기준)

<표 5> 익산시 1인당 장서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전국	2017광명
2.06	2.21	2.36	2.59	2.72	2.03	2.53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17. 12. 31기준)

종합하여, 익산시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서관수와 1관당 인구수, 장서수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서수는 크게 부족하여 도서관 서비스 문제와 질적인 면이 우려되고, 자료 대출수도 저조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서 추가 배치가 선결과제이며, 도서관 활력을 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공공도서관 발전 과제

익산시의 입법 정치인들은 도서관 소외지역에서 주민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요구를 일깨우고 있고, 수년간 주민들과 함께 시에 도서관 건립을 요구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익산시의 공원속 도서관 설립 정책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책과 함께 색다른 여가와 힐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신청사 건립과 함께 도서관이 복합건물로 설계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에서 시청과 더불어 생활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장점이 될 수 있다. 장서를 포함한 도서관 시설이 전국평균 이상인 익산시립도서관은 통일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협력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강점들은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익산시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약점은 사서의 증원없이 도서관만을 확충하고 있어서 도서관 운영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모든 분관이 기초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고, 특화된 자체의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도서관이 문학자료 대출의 강세로 장서의 구성과 이용에 있어서 불균형이 심하고, 대출수도 해마다 떨어지며, 우리나라 다른 공공도서관 수준에 비교하여 자료 대출이 저조하다.

익산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도시로 근대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사업에 도서관이 동참하여 문화기관으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자립형 사립고가 위치한 중소도시로, 전국의 순위에서 드는 학군으로 평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은 도서관의 교육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익산시는 고대의 보석전통을 잇는 보석산업을 활성화시켰고 농생명지역으로서 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 도시가 변모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에 도서관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산업과 도서관이 상생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필요한 지식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변화하는 정보기술은 우리 일상에서 새로운 체험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립도서관에서는 정보기술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이 여전히 도서관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를 크게 이끌지 못하고 도서관 서비스 향상의 동력이 되고 있지 않다. 정보평등을 위하여 도서관이 관심을 갖아야 할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설인 다문화기관, 노인복지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이 이러한 사회 기관이나 다른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잠재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도서관을 잘 알릴 수 있지만, 타 기관과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서관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그림 1>에 요약한 익산시공공서관의 약점과 위협 요인을 명확히 인식하여, 도서관 운영 변화의 동기를 삼고, 강점과 기회를 발판으로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확대 정책을 잘 살려서, 도서관이 도시와 함께 진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지식정보센터가 되어야 한다. 시의 도서관 정책 특징을 활용한 공원속 도서관의 특별한 여가 문화 창조와 생활편의 제공, 도서관에서 문화유적도시의 강점을 잘 살리며, 지역산업과 함께 도서관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교육 열망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육적 역할을 잘 수행하는 도서관 기능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도서관의 전문 서비스를 체험하고 도서관 역할과 서비스 대한 인식도 높여야 할 과제가 있다.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충실하면서 각 도서관이 특성화라는 분담과 협동 방식의 과제수행은 각 도서관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익산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p><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회와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 - 성장하는 도서관 시설과 공원과 함께하는 도서관 힐링 이미지 - 시립도서관들의 일원화된 시스템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한 사서 인원 - 분관간 비슷한 기초적인 도서관 역할 - 자료 구성의 불균형과 저조해지는 이용율
<p><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적의 도시로서 활발한 문화사업 - 시민의 높은 교육열 - 전통을 잇는 지역산업 확장에 따른 도서관 역할 증대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서비스를 대체하는 정보기술 발달 - 시민들의 낮은 도서관 서비스 인식 - 유사한 성격 타기관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그림 1> 익산시 공공도서관 운영의 SWOT 분석

Ⅲ. 도서관 발전전략

1. 도서관 인프라 확충

익산시는 도서관 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법과 국내외의 기준을 적용해서 현재의 인프라 수준을 점검하고, 도서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표 6>

〈표 6〉 익산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표

		익산시 도서관 (2017)	도서관법 시행령①	공공도서관 기준 (KLA,2013)②	IFLA/UNESC O Guidelines, 2001③	익산시 도서관 (2022년)	익산시 도서관 (2027년)
인구		31만	31만	31만	31만	31만④	31만⑤
도서관 건축	도서관수	7				10⑥	12⑦
	면적(㎡)	24,647	3,300 이상	10,540		28,590⑧	30,590⑨
	좌석수	3,659	800 이상	930		4,021⑩	4,361⑪
도서관 자료	도서(권)	817,853	90,000 이상	620,000	930,000	930,000⑫	1,240,000⑬
	연간증가량	30,260	9,000 이상	62,000	62,000	62,000⑭	62,000⑮
	연속간행물 (종)	882	310 이상	980		1,050⑯	1,250⑰
	비도서자료 (시청각)	67,929 (34,299)	(3,100)	12,840		91,841⑱	128,811⑲
도서관직원(사서)		80(30)	(210)	80(60)	124(41)	85(64)⑳	135(77)㉑

가. 공공도서관 법과 기준 대조

도서관법 시행령 4조의 사서 배치기준 에서는 도서관 건물면적 330㎡이하인 경우 사서 3명을 두고, 초과 330㎡당 1명씩을 더 두며, 장서6천권당 초과 1명 추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①. 현재 익산시 전체의 도서관 면적과 장서수에 따라 계산(3+24,317/330+817,835/6000)한 결과, 180명의 사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건축 면적, 좌석수, 자료수는 충족이 된다.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공공도서관기준(KLA, 2013)은 기본인력 3명에 서비스대상인구 9천명당 1명 추가하고, 기타직원은 사서직원의 1/3을 추가배치하는 것으로 하며, 기본 장서는 인구 1명당 2권으로 한다②. 권역별 5개의 시립도서관 인구수와, 나머지 인구를 교육청 2개 도서관에 소속된 것으로 계산한 결과 60명의 사서가 필요하나, 익산시 공공도서관에 현재 30명의 사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면적은 충족이 되나 자료에서 도서, 비도서는 충족되지만 연속간행물 종수가 98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IFLA/UNESCO Guidelines(2001)는 인구 1인당 도서 2-3권, 인구 50,000이상에서 연간 인구 1인당 0.20증서, 도서관 직원은 인구 2,500명당 1명, 직원의 1/3은 유자격자이어야 함을 권장한다③. 이 기준에 대조해볼 때 현재 11명의 사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익산시 1인당 장서수 평균이 2.7권에 도달하여 상위기준 1인당 3권을 목표로 하면 0.3권이 부족하다.

나. 중기(2018-2022) 인프라 확장

익산시 인구는 익산시의 도시 기본구상에 2015년에 360,000명, 2020년에 390,000명, 2025년에 420,300명을 추정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인구는 300,187명이다. 동아일보

에 전북도가 발표한 ‘전북 장래 인구 추계(2015년-2035년)’에 따르면 익산시 인구는 -6.6%의 감소율을 나타내 2020년에 296,520명, 2025년에 294,390명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도시로 교통입지를 자랑하는 익산시는 현재와 같이 인구 유입 정책을 계속하여 앞으로 10년간 310,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④.

익산시립도서관은 마동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영어도서관 신설을 계획하고 있고, 익산시의 동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어서 금마면에 도서관 설립이 고려되고 있다. 동산동 역시 인구밀집지역이지만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이 없어서 동산동과 익산의 남부지역인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주민까지 수용할 수 있는 남부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이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발전 중기계획으로 2023년까지 3개의 도서관이 추가되면 익산시의 공공도서관이 10개관이 된다⑤.

도서관 면적⑥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마동도서관을 분할하고, 남부도서관은 2,500㎡, 금마도서관은 황등도서관 면적의 약 2배인 950㎡ 추가한 것이다. 좌석수⑦는 도서관이 독서실 용도보다는 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성장함이 바람직함으로 기존도서관의 좌석수는 증가분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도서관에서 금마도서관은 황등도서관 좌석수 100석과 남부도서관은 익산시 기존도서관 평균좌석수의 2/1인 262석을 합한 것이다. 도서자료의 수⑧와 연간 증가량⑨은 는 IFLA의 기준③을 목표로 한다. 연속간행물⑩은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8%를 적용한다. 비도서 자료⑪는 시청각자료가 포함되며, 전자정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확대 폭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증가율 평균인 8.6%를 유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도서관법에는 이상적인 사서의 수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서관기준(KLA)을 5년내 추가될 3개 공공도서관을 합하여 10개도서관에 적용하여 합한 것이다⑫.

다. 장기(2023-2027) 인프라 확장

장기계획에서도 익산시 인구 31만 유지⑬를 추정하고, 2개의 도서관이 추가⑭하였다. 익산시내에서 신동과 남중동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도서관이 없어, 이 지역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신청사 건립과 함께 고려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신설이 필요하며, 중앙체육공원내의 청소년수련원에 설립이 바람직하다. 신청사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이 설립되면 기존 10개에서 2개관 추가하여 12개관이 된다. 신청사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은 복합건물에 설립되는 것으로 시내의 독립된 도서관건물보다는 작은 규모로 1,000㎡씩 산정하였다⑮. 좌석수는 도서관이 독서실 용도보다는 교육과 문화활동의 장으로 성장함이 바람직함으로 기존도서관은 증가수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도서관인 신청사도서관의 건물면적이 기존 도서관의 1/3을 약간 상회하므로 좌석수도 그에 준하여 평균 좌석수 1/3인 170석씩을 적용하였다⑯.

2027년에 KLA와 IFLA에서 연간 증서량으로 산정한 인구 1인당 0.2권 증서를 적용하면

장서 120만권으로 인구1인당 장서 4권으로 선진국 수준의 장서량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⑰로 하고, 이러한 증서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62,000을 연간 증서량으로 한다⑱. 연속간행물은 기존의 년 3.8%의 증가율로 산정하여 1,250종이 된다⑲. 비도서 자료는 시청각자료가 포함되며, 전자정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확대 폭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기존 연간 증가율 평균이 8.6%를 적용하여 128,811종을 목표로 하였다⑳. 도서관 신설에 따른 기본인력 증가분을 공공도서관기준(KLA)에 적용 산출하여 추가하였다㉑.

2. 권역별 도서관 운영과 특성화

공공도서관의 관습적 운영을 탈피한 효율적 운영방식으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특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이용자 접근성, 전문화된 인력, 지역사회분석, 타기관과 교류협력, 경영마인드가 우선된다는 것을 앞서 고찰하였다. 익산시는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장으로 접근성은 좋아지고 있으나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도서관 발전의 전제로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익산시 도시 특성과 도서관 경영 SWOT 분석을 통하여 익산시는 평생맞춤 교육·복지도시, 산업활력 경제도시, 역사문화 육성도시를 우선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가와 생활 편의 제공 등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의 도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특징을 살리는 방식의 특성화 전략을 담은 각 도서관

〈표 7〉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익산의 지역특성과 정책	특성화 주제 및 도서관 기능 강화 유형	도서관 특징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슬로건과 정책	(여성) 평생 교육센터기능	<모현도서관> 중앙관
보석 전통도시 및 보석·귀금속 산업	(보석·귀금속)전문지식 정보센터기능	<영등도서관> 귀금속 단지 인접
농업전통과 농생명밸리 중심의 식품산업 육성	(식품) 전문지식 정보센터기능	<부송도서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 인접
근대문화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굴과 계승의 필요성	(근대·향토) 역사·예술 문화센터기능	<마동도서관> 구도심, 최초 시립도서관
미래교육도시 조성사업	(영어) 아동 교육센터기능	<마동도서관> 인근에 외국어교육 센터 설립예정
시·군 통합도시로 넓은 농촌 면적과 노령인구	(노인) 평생 교육센터기능	<황등도서관> 노인복지관 복합건물
유네스코지정 세계유산도시-마한·백제	(마한·백제) 역사 문화센터기능	금마도서관(2020 신축안) 마한·백제 유적 지역
유천습지의 생태·환경 복원으로 청정도시 재건 희망	(생태·환경) 여가선용센터기능	남부도서관(2022 신축안) 생태습지공원 배후
복지정책 강화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발전계획	(복지·행정) 생활편의센터기능	신청사도서관(2024 신축안) 신청사복합건물
교육도시의 넓은 청소년회관 건립과 활성화 과제	(청소년) 교육센터기능	청소년도서관(2026 신축안) 청소년회관 복합건물

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서관 특성화를 계획하기 위한 익산지역사회 특징은 기존의 도서관 안을 참고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익산시 인구, 역사, 산업, 문화, 도시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시립도서관 사서들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 특성화 주제와 해당 도서관을 선정하였고, 도서관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다<표 7>.

익산시 공공도서관은 기본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기 위하여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계승 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도시의 전통 및 주력 산업에 전문정보를 중개하여 지역산업과 함께 도서관이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 교육도시로서 도서관의 교육여건을 확대하며, 넷째, 도서관의 여가기능 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섯째, 도서관에서 주민생활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의 도서관 특성화를 계획하고자 한다. 익산시 공공도서관이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서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체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고 도서관 지위를 향상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란 자료나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와 집중화를 통한 운영관리를 말하며, 지역 주민이 문화시민으로서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은 물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주민의 다양하고 변화되는 도서관에 대한 요구에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의 대표적인 특색을 살려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과 함께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는 공공도서관의 경영전략이다.(조찬식 2008, 162-163) 익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방법은 첫째, 자료 특성화와 서비스 특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둘째, 각도서관은 특성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폭넓은 장서를 수집하여,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준을 향상한다. 셋째, 특성화 주제와 관련한 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주제 자료에 대한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고, 특성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넷째, 특성화 전문사서를 육성하여 심도 있는 장기적인 도서관 서비스로 개발한다. 끝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교육일반 자료 특성화와 함께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영어교육과 청소년 주제와 진로 분야 특성화를 우선 실현한다.

가. 모현도서관

■ 도서관 운영

중앙관 역할을 하면서 권역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모현도서관은 공원내 위치하여 체육관 시설을 공유하며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수요층이 있고 인근에 다른 도서관이 없다. 중앙관으로 '운영지원'과 자료확충, 독서문화진흥사업 및 문화교양 강좌 운영, 어린이 문화학교 및 체험마당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서열람 및 대출, 황등분관 관리운영 등을 담당하는 '사서업무', 그리고 독서문화공간 확충 및 관련기관 협력, 도서관 및 국정시책합동평가, 도서관통계, BTL 업무 및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상호대차서비스 등의 '기획업무'를 하고 있다. 권역내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여 다문화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고, 중앙관으로

서 장애인·노인자료실의 활성화와 아웃리치 서비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담당자에 대한 직무훈련도 요구된다. 다른 권역의 도서관과의 공동 이용을 고려한 다문화자료 및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수장서를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립도서관 본관으로서 전체 도서관 장서의 균형을 위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여 성문화하여야 한다.

사서들 주도의 차별화된 문화교육서비스 개발, 취약계층서비스, 디지털 참고서비스, 창의공간 운영, 특성화 주제자료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대외협력(유관기관, 취약계층 지원 센터, 학교도서관 등)확대, 새로운 네트워크서비스 개발 및 4차산업 기술에 기반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등의 과제가 있다. 하지만 사서 관장을 포함한 정규직 사서 8명과 비정규직 사서 3명이 익산시 도서관 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서 업무와 모현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족한 사서 인원으로 업무의 창의성과 전문성 개발이 어렵고, 중앙관으로서 도서관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익산지역의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현도서관은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본 인력 수준인 20명 수준의 사서가 필요하나, 행정직을 포함한 기타의 직원으로 대치하고 있다. 야간연장 업무 등에 비정규직으로 사서를 채용하여 사서수를 대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최소한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12명의 사서는 정규직으로 채워져야 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4명의 정규직 사서는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표 8>.

<표 8> 모현도서관 현황

설립연도: 2011 연면적: 7,492㎡	1층	2층	3층	지하
장서 수: 144,638권 봉사대상: 80,089명(모현동, 송학동, 남중동, 신동, 오산면)	어린이자료실, 장애인·노인자료실, 시청각실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 이동자료실	자유열람실4	세미나실, 문화교실5, 자원봉사자실, 서고
사서수(기타 직원수)	도서관법시행령(부족인원)		한국도서관기준(부족인원)	
사서_정규직8, 비정규직3 (기타직원 13명)	사서 49명(-33명)		사서 12명, 기타직원 4명 (사서: -1명, 기타직원: +9명)	

■ 특성화 방안(여성)

중앙관인 모현도서관에서 익산시의 여성가족친화 도시 시책 추진에 동참하여 ‘여성’주제를 특화하는 운영모델이 적합하다. ‘여성’ 주제의 특화를 위한 특성화실(공간) 운영이 필요하고, 주제관련 도서자료와 사진이나 녹화자료 팸플릿 등의 비도서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야 한다. 여성 관련 프로그램(임산부 및 주부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데 여성관련 단체와 상호협력을 통해 특성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영등도서관

■ 도서관 운영

영등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수요층이 다양하며, 익산시 공공도서관들 중 청

소년 이용 및 대출이 가장 높은 도서관이다. 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주요업무는 도서열람 및 대출, 문화행사 및 문화교양강좌 운영, 어린이문화학교 운영 등 도서관 기초업무이고, 현재 정규직 사서 3인과 비정규직 사서 1인의 소수 전문인원이 도서관 전반의 서비스와 사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규직 사서는 내부의 운영적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에 주력하고 있어서 이용자 봉사의 질적인 향상이 어렵고, 전문적인 도서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 이용자 서비스와 자료실 참고 업무가 비사서 비정규직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 발전의 걸림돌이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과 지역사회 협력 및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도입,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특화자료실 운영과 서비스 개발 및 도서관 서비스 홍보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서가 충원되어야 한다.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사서가 10명으로 현재 6명의 사서가 부족하다<표 9>.

<표 9> 영등도서관 현황

설립연도:2003 연면적: 3,575㎡ 장서수:151,375권 봉사대상: 67,408명 (영등1·2동, 어양동)	1층	2층	3층	지하
	어린이자료1실 어린이자료2실 자원봉사자실	종합자료실전자 자료실문화교실	자유열람실3 문화교실2	시청각실 서고
사서수(기타 직원수)	도서관법시행령(부족인원)		한국도서관기준(부족인원)	
사서_정규직3, 비정규직1 (기타직원 7명)	사서 38명(-34명)		사서 10명, 기타직원 3명 (사서: -6명, 기타직원: +4명)	

■ 특성화 방안(보석·귀금속)

영등도서관은 권역인 영등동에 익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전통산업인 보석·귀금속 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도서관 특화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도서관과 산업이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도서관은 해당 산업기관과 협력을 위하여 기업에 이용될 수 있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중재를 담당하고, 기업을 도서관 운영에 참여시키며 후원하게 한다. 주제의 산업에 대한 홍보 및 진로·취업 정보를 공유하고, 전통적인 기업 활동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보석박물관과의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고대로부터 보석 전통 지역으로서의 익산에 대한 지식과 자부심을 갖고 보석 문화를 누릴 수 있다. 효과적인 도서관 특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실과 담당 사서가 확보되어야 하며, 보석·귀금속 주제의 각종 자료구입과 함께 홍보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다. 부송도서관

■ 도서관 운영

부송도서관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초등학교와 인접한 도서관으로 아동이용과 아동도서

대출률이 가장 높고, 아동과 함께 주부 이용자가 많다. 아동 대상의 교육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주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익산의 주력산업으로 예정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과 가장 근거리의 도서관으로 식품주제 특성화가 적합하다. 도서관 업무는 주로 도서열람 및 대출, 문화행사 및 문화교양강좌 운영, 어린이문화학교 운영 등의 기초적인 내용이다.

정규직 사서 2명과 비정규직 사서 2명이 도서관의 모든 전문영역을 관리하고 있다. 사서 인력수가 기준인원에도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서관법에 정한 기준에는 22명이 부족하고, 한국도서관기준에는 3명이 미달된다. 공공도서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소 한국도서관기준은 준수되어야 한다. 향후 도서관 특성화에 전문 인력 확보와 도서관 서비스 확대, 디지털 참고서비스를 포함한 참고봉사, 문화·교육서비스 개발, 창의공간 운영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3인을 추가 배치하여 한국도서관기준 사서 7명은 채워져야 한다<표 10>.

<표 10> 부송도서관 현황

설립연도: 2012 연면적: 3,743㎡ 장 서 수: 79,464권 봉사대상: 40,252명 (삼성동, 팔봉동)	1층	2층	3층	지하
	북카페 어린이자료실 세미나실	종합자료실 전자자료실 문화교실1	전자자료실 자유 열람실2문화교실2 자원봉사자실	서고
사서수(기타 직원수)	도서관법시행령(부족인원)		한국도서관기준(부족인원)	
사서_정규직2, 비정규직2 (기타직원 5명)	사서 26명(22명)		사서 7명, 기타 3명 (사서: -3명, 기타: +2명)	

■ 특성화 방안(식품)

호남평야에 위치한 익산은 향토식품인 고구마, 배, 한과 등의 생산과 가공 산지로서 성장해 온 농업 지역이었다. 도서관이 향토 식품의 역사적 자료 발굴 및 보존에 앞장섬으로서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식품주제의 장서 개발과 함께, 관련기관과의 협력으로 식품재배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도서관에서 운영한다면 전문성 있는 지식 프로그램을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들과도 협력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서관이 지식정보의 제공과 중재를 담당하고, 기업은 도서관을 후원하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등장하는 식품기업의 활동에 시민들의 긍정적 관심을 유도하고, 기업의 취업정보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도서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공공도서관이 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라. 마동도서관

마동도서관은 익산시립도서관들 중 가장 많은 대민 서비스 공간(18실)을 구비 하고 있고,

모현도서관 다음으로 넓은 연면적이 있다. 익산의 구도심 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시립도서관으로 가장 많은 장서와 희귀서를 보유하고 있다.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마동도서관의 복합건물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간 활용을 위하여 현재 이용율이 높지 않은 다문화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다문화실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중앙관이면서, 인근에 외국인 및 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모현도서관에 이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도심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도서관 인근이 교육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이 예정 되어 있다. 외국어교육센터 설립으로 학생들의 왕래가 빈번할 것을 예상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장기적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고 독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속적인 학생 독서문화 프로그램 필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서지도 전문사서가 필요하다.

마동도서관의 업무는 익산시의 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열람 및 대출, 문화행사 및 문화교양강좌 운영, 어린이문화학교 등의 기초적인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권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향상은 물론, 리모델링 후 장기적 이용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교육투자지역으로서 학생들 유입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구도심 문화지역으로서 근대 문화와 예술·향토문화 자료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진담자 필요성 등으로 사서의 충원이 불가피하다. 최소 한국도서관기준 사서 8명은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5인의 사서가 추가 배치되어야 한다<표 11>.

<표 11> 마동도서관 현황

설립연도: 1994 연면적: 4.973㎡ 장서수: 206,586권 봉사대상: 49,389(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1층	2층	3층	4층
	전자자료실 U-라운지 유아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다문화자료실	문화강좌실5 세미나실 노트북열람실	자유열람실5 지하 서고
사서수(기타 직원수)	도서관법시행령(부족인원)		한국도서관기준(부족인원)	
사서_정규직2, 비정규직1 (기타직원 6)	사서 51명(48명)		사서 8명, 기타직원 3명 (사서: -5명, 기타직원: +3명)	

■ 특성화 방안(예술·향토문화)

익산시에 최초로 설립된 시립도서관인 마동도서관은 구도심을 대표하는 지역문화기관으로 익산의 예술 및 근대와 향토 문화 특성화가 적합하다.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도서관은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업, 문화가 집적된 향토자료의 체계적 수집과 보존, 전통 문화 및 역사보존 사업(문화축제, 문화벨트 조성, 역사공간 복원, 거리 및 마을 조성, 유적지 브랜드와, 향토 관광 상품 개발 등) 참여, 발굴·고증·복원을 위한 역사자료의 수집과 지원, 원형자료 및 기술내용의 사실여부 판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윤희운, 2015:17). 익산시의 근대 4대 종교성지 특성을 살리는 위한 종교단체, 익산 문화원, 예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예술 및

향토 문화 자료를 수집·정보화하고 시민들이 익산의 예술과 향토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도서관이 근대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 사업의 핵심 역할로 지역 사회에 공헌하도록 한다.

■ 영어도서관 설립과 운영방안

마동도서관은 익산시립도서관들 중 모현 본관을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며, 면적대비 이용율이 낮아 영어도서관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이 되고 있다. 기존의 공공도서관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도서관 신축의 예산을 절감하고, 마동도서관과 시설을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영어도서관 시설과 운영은 앞서 검증된 우리나라 공공영어도서관 11개관의 사례 분석을 참고하여 기초적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시설 구성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여 파악한 우리나라 11개의 공공 영어도서관은 단일건물이 7개관, 복합건물이 4개관이었으며, 일반 영어도서관이 7개관, 어린이영어도서관이 4개관 이었다. 면적은 평균 980㎡, 최소 439㎡이었고, 좌석수는 평균 149석, 최소 43석 이상을 구비하고 있었다. 시설은 크게 자료실, 열람실, 유아실, 프로그램운영실, 다목적실, 강당(공연실), 휴식 및 기타의 공간시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영어도서관 사례에서 보듯이 영어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하여 익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최소 500㎡는 확보하여야 한다. 영어도서관은 일반 어린이 도서관과 같이 열람실, 유아실, 프로그램개발실, 토론학습실, 멀티미디어실, 다목적 홀, 이야기방, 공부방 등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읽기교실, 강의실, 공연장, 동아리방, 북카페, 체험실 등이 있어야 한다(이만수, 2015:19). 우리나라 영어도서관의 시설을 참고하여 설계한 익산시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도서관 시설 구성안이다<표 12>.

<표 12> 익산시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시설 구성안

영어자료실	키즈존	프로그램실(2)	다목적실(공용)	소강당(공용)	안내/기타
자료공간 독서공간 멀티미디어공간	유아 자료/ 활동공간(2)	프로그램 운영 테스트	독서/토론 동아리 세미나 체험 부모교육	공연 특강 영화	안내데스크 북카페 공부방

영어자료실은 넓게 설계하여 열람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영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안락한 환경을 구성한다. 자료실에서의 열람은 자료선택의 편의성도 높이고 공간 활용도 합리적이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서가 사이에 스톨과 소파를 설치하여 시간을

두고 충분히 보면서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원미경 2015 197)이 중요하다. 자료실 안에 멀티미디어 공간을 분리하여 책과 함께 DVD, 인터넷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키즈존으로 유아전용 영어자료 서가와 학습 활동을 할 유아실 필요하다. 영어독서의 흥미를 높이기 유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유아실을 어린이실과 별도로 설치하고, 유아실 안에 작은 활동 공간을 2칸 이상 분리하여, 유아 자료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원어민 교사 또는 영어교사가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을 위한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2실 이상 필요하다

토론, 동아리, 세미나, 체험, 부모교육 등의 비정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도 고려해야 하고 각종 강연이나 공연 및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소강당도 필요하다. 아동을 데리고 온 부모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북카페나 휴게공간 및 아동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제공하면 도서관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공간들은 마동도서관의 기존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다. 영어자료 안내와 참고서비스를 영어와 병행하여 제공하는 안내데스크가 필요하다.

② 운영 인력

우리나라 영어도서관은 봉사대상 평균 인구는 익산시와 유사한 330,676명이었고 어린이 대상인구 평균은 38,941명이었다. 1관당 사서는 평균 2.73인, 행정 및 기타 직원은 평균 4.64인의 평균 총 7.36인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익산시 어린이 23,993명을 대상으로 볼 때 어린이영어도서관은 한국도서관기준 최소 5인 이상의 사서가 필요하다. 영어도서 수서와 정리 1인, 영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1인, 안내데스크, 참고업무, 자료열람, 견학 등을 담당할 3인 이상의 총 5인 이상의 사서와 3인 이상의 행정 및 기타의 직원, 2인 이상의 영어 교사가 필요하다<표 13>.

<표 13> 익산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의 봉사대상자와 필요 인력

봉사대상 인구	어린이 봉사대상자	사서	행정 및 기타	원어민/전문가	자원봉사자
310,000	23,993	5인 이상	3인 이상	2인 이상	청소년, 성인 다수

영어자료의 수서와 정리는 일반도서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원미경 2015 196)고 한다. 양질의 원서 자료구성을 위해 미국교육협회나 미국어린이서비스협의회 등의 서지자료나 추천도서 사이트를 활용하여야 하고, 영어권 수상작을 참고해야 한다. 더욱이 단계별 영어자료 선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의 정리에 있어서 서지데이터를 호환할 수 있는 표준적인 분류체계를 적용하면서 이용의 편의를 위해 Lexile 지수에 따른 수준별 분류방법도

적용해야 한다. 때문에 영어도서관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사서가 요구된다.

프로그램 운영은 영어지도가 가능한 사서, 원어민 교사, 영어교육을 전공한 한인 교사 등 전문적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이만수 2015 19).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영어 책 읽어주기, 멘토활동, 문화 행사와 배열 등의 도서관 업무 보조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은 영어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많고, 이들에게도 봉사활동은 의미가 있는 일로서, 자원봉사 인력을 잘 활용하면 영어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문서비스의 보조업무로서 자원봉사자의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

③ 영어도서관의 프로그램

우리나라 공공 영어도서관의 프로그램 사례조사에서, 일반 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영어도서관 모두 유아영어와 초등영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동의 영어수준을 진단하여 수준별의 전문적인 영어 수업방식으로 원어민 위주의 영어교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자료를 갖추고 있는 영어도서관에서 전문적인 영어 교육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동기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영어도서관 뿐 만 아니라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도 청소년이나 성인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었고, 청소년과 성인 자원봉사자 인력을 크게 활용하고 있었다.

한편, 스토리북을 활용하는 스토리텔링은 언어의 기능적 측면만 아니라 어린이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창의력을 개발하여 정신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날의 언어 교육은 언어 자체에 관한 지식이나 언어적 과제 중심의 학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보를 구축하고 아동의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주며, 풍부한 사고과정과 인지활동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스토리텔링은 바람직한 교육법(양운정, 2012: 101-102)이다. 최근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의 장점과 e-러닝의 이점을 결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교육과 재미의 요소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로서 동기유발, 몰입을 통한 자발적인 학습과 스토리텔링 사용자 간의 동질감 형성의 효과가 있다(정윤희, 김현옥, 2012:65-67).

도서관은 장서를 갖추는 것이 기본 기능이고, 어린이 영어도서관은 양질의 스토리 북을 핵심장서로 구성한다. 스토리텔링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다양한 스토리 북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에서 스토리텔링 영어독서프로그램은 아동에게 정보와 정서는 물론 언어습득과 창의력 신장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다. 따라서 익산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양질의 스토리 북을 갖추고, 스토리텔링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하며, 도서관의 영어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읽기 중심방법에 그림 활용, 노래활용 응용활용을 추가한 재미있는 영어독서 활동을 위주로 진행한다. 또한 첨가된 효과음악으로 정서적 안정감과 재미를 더하고, 흥미로운 학습환경 제공 및 표준적 발음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도 적극 활용한다<표 14>.

<표 14> 스토리텔링 중심의 익산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유아	초등	청소년/성인	부모/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스토리텔링 - 동화로 배우는 기초영어 - 엄마와 함께 영어동화 - ABC Fun Phonics ■ 문화행사: 애니메이션, 연극, 공연 등 ■ 방학캠프 ■ 영어체험 ■ 언니랑, 형이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스토리텔링 <기초> Storytelling with Story book Level I, ABC Fun Phonics, Playing with Words <기본> Storytelling with Story book Level II, Speaking with words. English Theater <심화> Storytelling with Story book Level III, ENIE. Book Club. ■ 문화행사 ■ 영어체험(1일 이벤트, 견학) ■ 방학캠프 ■ 언니랑, 형이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자 양성 ■ 영어동아리 - 북클럽 - 스크린/팝 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가족프로그램 (게임, 영화, 팝송 등) ■ 엄마 스토리북 교실 ■ 부모특강 ■ 열린강좌

익산시는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오는 학부모, 주부들에게도 자녀를 직접지도 할 수 있도록 영어 독서와 교육에 대한 정보와 체험이 필요하다. 청소년들 역시 여가와 봉사활동으로 영어도서관에서 건강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어를 기반으로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영어도서관 홍보와 함께 견학과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영어독서와 교육의 혜택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동기를 주고, 영어도서관의 수혜자가 되어 행복한 영어독서를 체험하여,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성장하도록 영어도서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설립될 익산시 영어교육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익산시 학생과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언어와 글로벌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마. 황등도서관

황등도서관은 황등면소재지의 노인복지센터 복합건물로 2층을 사용하며 1실에서 자료실, 유아실, 문화교실을 겸하고 있다. 오산면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면소재로 인근에 초, 중, 고교가 있다. 농촌지역으로 농업 종사자와 노인인구가 많으며, 석재공장 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권역주민이 도서관 서비스 대상이다. 도서관으로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초업무가 있으나, 황등 도서관에는 정규사서는 없고 비정규 사서 2명으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중앙관인 모현도서관에서 파견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고, 도서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최소 3명의 사서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지위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규직 사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표 15>.

〈표 15〉 황등도서관 현황

설립연도: 2016 연면적: 422㎡ 장 서 수: 12,948권 봉사대상: 7,929(황등면)		2층(복합건물)
		자료실, 유아실, 문화교실 공용
사서수(기타 직원수)	도서관법시행령(부족인원)	한국도서관기준(부족인원)
사서_정규직0, 비정규직2(2) 기타직원: 무	사서 4명(1명)	사서 4명, 기타직원 1명 (사서: -2, 기타직원: -1)

■ 특성화 방안(노인)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 노인복지센터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 위치한 황등도서관은 노인특화로 모현도서관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정보 소외계층인 노인들에게 도서관의 정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수혜하게 할 기회가 된다. 노인이 서비스 대상이면서 자료의 주제 특성화를 위해 노인과 관련한 정보, 특히 건강, 경제와 노년생활 등의 자료와 그림, 대활자 도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실버문화봉사단, 동화구연, 어른신문화학교, 건강교실 등의 노인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데, 노인복지센터와 보건소와의 협력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 도서관 서비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많은 생활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현대 생활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이 정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도구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정보이용교육이 필수이고 대상별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3. 도서관 시설과 운영모델

익산시립도서관은 중·장기계획이 마무리되는 2027년 까지 이용자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신설도서관 역시 도서관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성화를 포함한 운영모델을 설정한다.

가. 금마도서관(2020 신축안)

익산의 왕궁면(인구 4,918명), 금마면(인구 5,360명), 여산면(인구 3,583명)을 아우르는 동부지역에도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부의 중심의 위치에 있는 금마면의 한옥마을과 어울리는 한옥형 도서관이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도서관 건물면적은 최소한 황등도서관 면적의 2배 이상으로 1000㎡은 확보해야 봉사대상 인구의 수용한 적절한 서비스 공간과 특화자료실을 구성할 수 있다. 도서관 운영의 핵심자원인 사서는 한국도서관 기준에 따라 인구 16,449명을 대상으로 4인 배치이고, 평가기준이 되는 최소 사서 3인은 있어야 한다.

■ 특성화 방안(마한·백제역사)

왕궁면과 금마면 일대는 마한·백제의 역사유적 지역으로, 설립되는 공공도서관은 마한 백제 역사를 특화함으로써, 도서관이 역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인근의 국립박물관과 함께 역사문화 벨트의 축으로, 백제의 고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인 익산의 고대문화와 함께 성장하고 기여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한백제의 역사 주제 자료수집과 보존 및 DB화 작업과 함께 역사 문화·독서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사서 확보와 직무교육 등의 지원이 있어야하며, 역사박물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나. 남부도서관(2022 신축안)

익산시 남부권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에 따른 타당성 조사에서 구동산동행정복지센터 건물 2,400㎡가 고려되고 있다. 남부권은 중앙동(3,776명), 평화동(4,663명), 인화동(7,461명), 동산동(23,524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해야 하고, 건립후 보지역은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가 근접해있고, 유천생태습지공원을 배후로 한다. 총 39,215명의 서비스 인구를 대상으로, 한국도서관 기준 7인의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 특성화 방안(생태환경)

남부도서관은 자연환경 보존적 여건에서 환경 특화도서관 모델이 적합하다. 생태학습을 겸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여건에서 생태환경 주제의 특화 자료를 구비하고, 환경테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선진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자연테마 및 휴식형 도서관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서관 주변 여건을 활용하면 여가선용센터로서 도서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다. 신청사도서관(2024 신축안)

익산시의 신동과 남중동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의 공공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남중동의 신청사의 복합건물로 공공도서관 설립이 고려되고 있다. 신동(16,509명)과 남중동(13,150명) 주민을 대상으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 건물면적은 주민 29,659명 대상 한국도서관 기준 최소 1,000㎡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사서수는 한국도서관기준 6명이다.

■ 특성화 방안(행정·복지)

익산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복지정책 강화와 홍보를 위한 ‘복지박람회’와 ‘복지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복지 익산을 약속하고 있다. 시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은 복

지와 행정 관련 자료 요구 및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이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복지 자료 특화 운영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사도서관은 익산시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자료를 포함한 행정·복지 주제 자료 개발과 함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시민들을 지방자치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숙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도시 정책과 복지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 도서관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편의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청소년도서관(2026 신축안)

인간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자기정체성 형성을 위하여 좋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아야 하고, 미래를 위한 학업성취의 과제가 있다. 교육열이 높은 익산시에서는 중앙체육공원내에 비교적 너른 공간의 단일 건물로 청소년회관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곳에 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시설을 갖춘다면 청소년들의 생애발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익산시 중앙체육공원내에 청소년회관 복합건물로 본 제안하는 청소년도서관은 익산 전역의 20,679명의 청소년 대상의 도서관 성격에 부합하는 공간구성을 위하여,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고, 한국도서관 기준 사서 5명이 필요하다.

■ 특성화 방안(청소년)

청소년 특성화 모델의 청소년도서관은 청소년자료를 특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모델을 병행한다. 청소년 특화 도서관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깊게 탐구할 수 있는 도서, 추천 도서, 심리치유 도서 등 양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한다. 청소년도서관에서는 공원을 활용한 독서캠프나 북토크 프로그램, 진로프로그램,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 교육·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심화해야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익산시립도서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익산시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운영을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도서관과 장서의 수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 도달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도서관 경영의 핵심 자원인 사서의 수는 한국도서관 기준에도 미달하고, 도서관당 사서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과 함께, 이용자수와 자료 대출수

는 저하되고 있었다. 익산시 공공도서관은 시설의 지속적 확장과 더불어 인력을 보충하고 질적인 도서관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사회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에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보편적 서비스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고, 도서관의 기본 서비스와 함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익산시 공공도서관이 국가의 도서관 발전 정책을 따라서 도서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논할 수 있다.

첫째, 양적인 인프라의 지속적 확장과 함께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서의 충원이 시급하다. 기초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할 수 있는 현재 수준의 사서 인원으로서는 공부방으로서의 기능과 단기적인 문화 프로그램 제공 이상의 도서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고, 도서관이 전문기관으로 성장할 수 없다. 도서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서 인력(익산시 1관당 평균 3.1인)은 최소한 전국평균 정규직 사서 4.3인(2018년 국가목표 6인) 이상은 확보되어야 하고, 한국도서관 공공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사서 인원은 배치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도서관 평가시 문제가 되고 있는 황등 분관에 정규직 1인은 시급히 배치되어 3인의 사서직이 채워져야 하고, 조만간 마동도서관 리모델링과 함께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향후 설립될 모든 도서관은 작은 규모일지라도 사서직 3인의 기초인력 이상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도서관 중기 발전단계(2018-2022)까지 익산시 공공도서관이 전국평균 정도의 정규직 사서를 확보하여 안정된 도서관 운영과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로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 발전단계(2023-2027년)까지 각 도서관이 한국도서관 기준을 충족하는 사서 인원을 확보하고, 특성화 전문사서가 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익산시 공공도서관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정받는 지식전문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둘째, 익산시 공공도서관에서도 특성화를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 담당 소재도 명확치 않고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특성화를 담당할 전담자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발전 방향과 함께하는 하는 도서관 특성화의 방향으로 각 공공도서관에 맞게 특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석·귀금속, '식품' 주제를 특성화 운영함으로써 전문 지식정보센터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근대·향토 문화'와 '마한·백제 역사문화'의 특성화로 도서관의 문화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생태·환경' 특성화는 여가선용 기능을, '복지·행정'은 생활편의 기능을 강조하는 도서관 역할 강화의 방향이다. 교육도시 익산시의 공공도서관은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적 역할과,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 '노인' 주제 및 대상 특성화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전문화 할 수 있으며,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운영 방안과 '청소년도서관' 신설은 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비전이 된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 역시 교육일반 주제를 심화하고 학교도서관 지원체계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는 도서관의 의무이다. 익산시 공공도서관은 모현도서관에 장애인실과 마동도서관에 다문화실과 자료를 갖추고 있지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도서관에서 시민의 정보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할 사서가 필요하다. 현안의 문제로 마동도서관의 리모델링에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위해 이용율이 저조한 다문화실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는 바, 다문화여성과 외국인 거주가 많은 권역이고 본관인 모현도서관에서 장애인서비스와 함께 다문화서비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노인서비스는 노인거주가 많은 농촌지역인 황등의 노인복지센터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황등도서관에서 특성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모현도서관의 부담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과 새로운 정보기술 발달은 도서관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신기술을 다룰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신기술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전하는 정보문화를 먼저 체험시키는 지식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시키는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특성화를 위해 유사한 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익산시 공공도서관 신설의 방향과 함께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특성화를 위한 전략 제시를 위하여 진행된 것이다. 따라서 익산시 공공도서관이 변화의 시기에 도서관 발전의 현안 문제로 삼고 있는 균형 있는 도서관 시설 확충, 어린이 영어도서관 조성 및 운영,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장서확충 등을 해결하는 기초자료로 본 연구의 내용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익산시 공공도서관만의 사례와 특성화 중심의 방법으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향후, 선진국 도서관들과의 최신 동향 비교연구나 다각적 측면의 공공도서관 발전전략이 연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단체에 공공도서관이 내실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이러한 연구로써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곽동철. 2012. 청주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65-283.
- 곽동철. 2017.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인문과학논총』, 54: 15-39.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4.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4-2018)』 세종: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김광오. 2018. 전북인구, 2035년엔 180만명선 무너진다. 『동아일보』 2월 2일. <<http://news.donga.com/3/all/20180201/88475924/1>>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online].
<<https://www.libsta.go.kr/libportal/libStats/mainStats/getMainStatsList.do>>
- 양윤정. 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어린이 영어교육. 『스토리앤이미지텔링』, 4: 100-122.
- 윤희윤. 2015.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1-20.
- 이만수. 영어도서관 운영 현황 조사 연구. 『디지털도서관』, 77: 3-20.
- 이승민. 2016. 공공도서관 이용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29-50.
- 익산시청 홈페이지. [online]. <www.iksan.go.kr>
- 장덕현, 강성권. 2016.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9-148.
- 장우권, 박성우, 여진원. 2014. 공공도서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345-367.
- 정윤희, 김현옥. 201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영어수업이 초등학생의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학연구』, 43(1): 63-89.
- 조찬식, 조미아. 2011. 『공공도서관의 이해와 분석』. 서울: 에듀컨텐츠.
-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 특성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Durk-Hyun and Kang, Sung-Kwon. 2016.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Public Library Advancement Plan of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129-148.
- Chang, Woo-Kwon, Park, Seong-Woo and Yeo, Jin-Won.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1): 345-367.
-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159-178.
- Cho, Chan-Sik and Cho, Mi-a. 2011. Understanding and Analyses of the public

Library. Seoul : Educontents.

- Jung, Yun Hee and Kim, Hyeon Okh. 2012. The Effect of Storytelling-Enhanced English Lessons on Primary School Students' Oral Skills and Learning Attitudes.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3(1): 63-89.
- Kwack, Dong-Chul. 2012. "A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um-term and Long-term Development Plan for Public Libraries in Cheongju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265-283.
- Kwack, Dong-Chul. 2017. "A Study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Humanities*, 54: 15-39.
- Lee, Mansoo. 2015. "A Study to the Public English Library Operations and Services in South Korea." *Digital library*, 77: 3-20.
- Lee, Seungmin. 2016. A Study on the Creation of Social Capital Through the Us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29-50.
- Noh, Younghee and Kang, Jung-Ah. 2014.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67-93.
- Yang, Yunjeong. 2012. "Teaching English Through Storytelling in Children's English Education." *Story & Image telling*, 4: 100-122.
- Yoon, Hee-Yoon. 2015. "The Contribution Strategy of Public Library to Local Cultural."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1-20.